

# 전북자치도 반성폭력 30주년 기념행사

오늘 한국전통문화전당서 '세계 여성 폭력 추방 주간' 맞아 연극·합창 무대 선사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와 지역 예술가들이 협업한 전북특별자치도 반성폭력 30주년 행사 '사랑과 연대'가 오는 25일 오후 6시 30분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진행된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에 따르면 사랑과 연대는 재단의 예술인복지증진센터 2024 예술인복지지원 예술로 180°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전북지역 반성폭력 30년을 맞이한 해로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북특별자치도 반성폭력 30주년 행사 '사랑과 연대' 포스터

연극 분야의 송원, 안지완, 이혜지 예술인은 활동가들의 서사를 담은 참여형 연극공연의 대본제작 및 연출에 기여했으며, 음악 분야의

조인목, 최산하 예술인은 전체 활동가가 참여하는 합창의 지휘 및 편곡, 반주를 통해 예술적 역량을 보였다.

이번 공연의 총연출을 맡은 리더 예술인 송원은 "이번 협업을 통해 예술적 지식과 역량을 기관의 문화제에 담을 수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의 신혜선 대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성폭력특별법 제정부터 지금까지 전북지역 반성폭력운동 3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함께 연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예술로 180° 협업을 계기로 앞으로도 기관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예술인들을 통해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술로 180°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고 다양한 직무영역을 개발해 예술과 사회의 협업을 도모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복지증진센터(063-230-7432)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최태성 서경석의 여행본색 - 왕이로소이다

전북문화관광재단 ·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서 전주 · 완주 소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지난 23일 오후 3시 5분 EBS 1TV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이하 EBS)와 공동 제작한 '최태성 서경석의 여행본색 - 왕이로소이다(이하 왕이로소이다)'를 선보였다.



자치도만의 역사적 가치를 공영방송을 통해 널리 소개할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내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마케팅팀(063-230-4221)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한국전통문화전당, 김장문화 확산 앞장

김치의 날 맞아 체험·이벤트·김장김치 나눔 행사 등 가져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이 지난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김장문화를 확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전당에 따르면 지난 18~22일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와 김장문화를 알리고자 △맛있는 김치 체험 △메타 전당에서 열리는 김치의 날 퀴즈 이벤트 △전주시 보훈단체협의회에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18~19일 양일간 4회에 걸쳐 손쉽게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보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체험은 △백김치&파프리카 김치 △매추김치 △쪽파김치&무생채 △총각김치 등으로 모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시간상의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 플랫폼(메타 전당)을 활용한 퀴즈 이벤트도 진행했

다. 이벤트는 메타 전당을 방문해 김치와 관련된 퀴즈를 풀고 전당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어 22일에는 전 직원이 직접 담근 김치를 지역 소외계층에 나누는 행사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담근 김치는 전주시 보훈단체협의회에 전달됐다.

김도영 원장은 "자랑스런 우리의 김장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진행된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해 줬다"며 "특히 전담 직원들과 함께 준비한 김장김치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전달될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치의 날'은 매년 11월 22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김장문화를 알리고자 지정됐다.

/장은성 기자

## 어반플레이 홍주석 대표 27일 '전북지식살롱' 9회차 강연

(주)어반플레이(URBANPLAY) 홍주석 대표가 '전북지식살롱(시즌2)' 9회 차 강연에 나선다.

지난 22일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5시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1층에서 강연을 펼친다.

참여 신청은 로컬의 매력과 가치 발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포스터 내 QR 코드 또는 신청 링크(han.g/1EQ7)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강연에서는 홍주석 대표가 진행했던 도시 문화 기획 프로젝트 경험과 지방 소멸시대

에 대응하기 위한 로컬 브랜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한다.

주요 내용은 △경험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필요한 새로운 콘텐츠와 공간 운영 모델, △지방 소멸시대에 로컬에 찾아오는 기회와 위기 등 사람들이 풀리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콘텐츠 가치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063-230-4216)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부안예술회관, 동화발레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의 모험' 공연

부안군이 오는 12월 5일 오후 7시 30분, 부안예술회관에서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의 모험' 공연을 선보이며 관객들을 기다린다.

이번 공연은 부안예술회관 기획공연으로 해설이 있는 동화발레로 클래식 발레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어린이 관객들의 문화 감수성을 자극한다. 어린이들의 베스트셀러가 되어 연극과 영화, 그리고 뮤지컬로도 만들어진 익숙한 스토리이다 눈을 떼 수 없는 화려한 발레 퍼포먼스와 신비로운 미술쇼를 더해 관객들에게 신선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본 공연은 소녀 도로시가 이상한 나라에 떨어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마법사 오즈를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하고, 길을 찾던 중 허수아비, 나무꾼 등과 함께 지혜롭고 용감하게 이겨내는 도로시를 발견할 수 있다. 도로시의 모험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 용기와 지혜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들려주는 이야기이다.

티켓예매는 25일 오전 9시부터 티켓링크와 부안예술회관에서 가능하며 관람료는 전석 10,000원이고 부안군민은 90% 할인해 1,000원이다. 자세한 공연 내용과 일정은 부안예술회관(063-580-3930)에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국제학술대회 개최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단장 변주승)은 오는 29일 대학본관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연구단의 2단계 4년차 아젠다 연구 방향인 '무리, 꿈속의 인간'이라는 주제로 한국, 프랑스, 중국, 일본의 학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총 6개의 발표와 토론을 2부로 나눠 진행한다. 이대대 교수와 장순순(이상 전주대) 교수가 제1부와 제2부의 사회를 맡는다. 종합토론은 HK+연구단장 변주승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제1부는 '경험 공간과 기대 지평'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구연상(숙명여대) 교수가 「포스트휴먼의 우리말 뜻매김과 새로운 사람의 조건」을 발표하고, 두 번째 전준용(전주대) 교수가 「상상력의 힘과 가능성을 꿈꾸는 인간」을 발표하며, 세 번째 장신모(중국 남경대) 교수가 「조선의 '대동사회(大同社會)」 구상: 주자(朱子)의 '사창(社倉) 제 수업을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토론은 이경배(전주대), 양선진(서울시립대), 조운선(전주대) 교수가 담당한다.

제2부는 '실존의 문제와 미래공동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윤상원(전북대) 교수가 「1920-30년대 소비에트 한인들이 그린 유토피아」를 발



표하고, 두 번째 오세종(일본 류큐대) 교수가 「단편화되는 삶과 그것을 둘러싼 상황 유희」, 『(도쿄)우에노 스테이션』을 읽는다」를 발표하며, 세 번째 김대열(프랑스 INALCO)

교수가 「자연, 인간 그리고 미래의 인문사회학」을 발표한다. 토론은 홍용호(동국대), 최민경(부경대), 손운라(동국대) 교수가 담당한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자 '기다림의 현재' 이면서 동시에 '기대 지평' 이기에 인간은 경험 공간(즉 전통과 문화유산)과 기대 지평 사이에서 늘 갈등한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인간의 실존적 문제 가운데 공존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미래 공동체를 탐색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장은성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